

동화제시방법(구연동화, 인형동화, 극화동화)이 유아의 동화이해도와 이야기구성력에 미치는 영향

박 금 희(가톨릭대학교 박사과정) · 이 미 숙(가톨릭대학교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동화제시방법이 유아의 동화이해도와 이야기구성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비교 검토해봄으로써 교사와 부모들로 하여금 유아의 발달수준과 교육목표에 적절한 동화 방법을 선택하여 제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려는 데 있다.

연구대상은 인천광역시 B유치원에 다니는 만 4세의 남아 17명과 여아 16명이며, 이들을 3개 집단으로 나눈 다음 라틴장방형 설계로 3개 집단의 유아 모두에게 구연동화, 인형동화, 극화동화의 세 가지 제시방법을 복합 처치하였다. 실험은 1주일에 3회씩 4주에 걸쳐 실시하였고, 각 집단에 12회씩 총 36회를 실시하였다. 동화는 작품선택 기준에 따라 12편을 선정 후, 구연동화, 인형동화, 극화동화로 각각 개작, 각색하였다. 동화이해도 분석도구는 Morrow(1985)가 제시한 내용 이해도 검사방법을 기초로 해서 박영란(2000)이 일부 수정 보완한 것을 기초로 본 연구자가 10개의 항목으로 제작하였다. 이야기 구성력 분석도구는 Morrow(1996)가 제시한 '이야기 다시 말하기'에서 유아들이 재구성한 이야기의 질적 수준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이야기의 분석도구를 채종옥(1996)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한 것을 본 연구자가 일부 수정 보완하여 8개의 항목으로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방법은 동화별로 동화이해도와 이야기구성력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실험집단별, 유아의 성별, 동화제시방법별로 평균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Oneway ANOVA, t검증 및 쌍체 t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연동화, 인형동화, 극화동화의 세 가지 제시 방법에 따라 동화이해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극화동화의 경우 동화이해도가 가장 높았다. 반면, 인형동화와 구연동화의 경우 동화이해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둘째, 구연동화, 인형동화, 극화동화의 세 가지 제시 방법에 따라 이야기구성력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한 결과 극화동화의 경우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반면, 구연동화와 인형동화의 두 제시 방법에 따라 이야기구성력을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결과는 동화제시방법에 따라 유아의 동화이해도와 이야기구성력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밝힘과 동시에 유아의 발달수준과 교육목표에 따라 적절한 동화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 극화동화가 구연동화나 인형동화에 비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는 것은 몸짓, 표정, 행동의 표상이 유아에게 학습의 중요한 도구가 됨을 입증하고 있다. 이는 언어적 표현이 미숙한 유아의 경우, 언어적 방법으로 지도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표상활동을 통해서 지도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청각적 매체나 시각적 매체로만 동화를 제시해 줄 것이 아니라 듣고 본 것을 그들의 몸짓이나 표정, 음성을 통해 재구성하는 다매체적인 방법으로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 지금껏 현장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방법으로서 들려주거나 보여주는 등의 소극적 형태의 동화제시방법을 탈피하여 극화동화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표상을 해보는 다매체적인 동화제시방법을 추구해나감으로써 학습의 효율성을 더욱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 하겠다.